

# 부산시에 소재하는 고개의 조망특성에 관한 연구

조승래\* · 강영조\*\*

\*동아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조경학과 · \*\*동아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 I. 서론

경관이라는 현상을 후기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사건과 같은 개념으로 여긴다면(이정우, 1999) 경관은 사건이 발생하는 특이점에서 생겨난다.

경관이 발생하는 특이점은 공간 속을 유영하는 인간의 정신만큼이나 다양할 수가 있다. 하지만 언덕을 오르다가 언덕 마루에 섰을 때 느닷없이 펼쳐지는 경관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체험되는 인상적인 경관 체험이듯이 보편적인 특이점의 존재는 쉽게 양해할 수 있다. 그런 장소를 바둑 용어를 빌어 경관의 맥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고개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쓴 '천 개의 산마루'라고 할 때 그 산마루처럼 경관이 발생하기 쉬운 보편적인 특이점 중 하나다. 본 연구는 고개라고 하는 장소가 경관이 발생하기 쉬운 특이점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고개에서 보는 조망경관의 시각적 특성을 밝히려고 하였다.

고개에 관련된 경관적인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다만, 고개에서의 시각 특성인 부각의 경관적 가치에 주목한 연구(樋口, 1975)가 있었다.

## II. 연구의 방법

### 1. 조사방법

부산시 소재의 44개소의 고개를 대상으로 조망 특성을 밝힌 것이다. 조사 방법은 홈페이지에 소개된 고개를 지형도를 통해 위치를 파악한 후 현지에서 경관특성을 파악하였다. 고개에서 조망되는 경관대상을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시각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핸드 레벨로 부각을 측정하였고, 그 부각과 표고에서 시거리를 산출하였다.

## 2. 연구내용

고개의 조망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고개의 명명 근거를 분석하여 고개 지명의 명명 수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고개가 위치한 지형부위를 근거로 하여 고개를 유형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다음은, 고개에서 조망되는 경관의 특징에 따라 조망대상을 유형적으로 파악하였다. 또, 고개(시점)에서 보는 부각과 시거리 등 경관대상의 시각특성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고개의 조망행위를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하여 고개에서의 온전한 경관체험을 방해하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고개의 지명 분석

연구 대상으로 삼은 고개 44개소의 부산시 자료를 이용하여 지명 유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산시 소재 고개의 지명은 그 명명의 수법이 크게 4 종류로 나타났다. 먼저, 엄광산과 구덕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명명된 구덕고개와 같이 "~에 있는 고개"가 있다. 이것은 저명한 장소 안에 있는 고개라는 의미로 명명의 수법은 "포함"이다. 그 외 고개라고 하는 경계부에 흔히 보이는 전설에 유래하는 것이 있다. 또 그 고개에서 눈에 띄는 경물, 예를 들면 감나무나 까치가 있다고 해서 감고개, 까치고개, 또는 '새띠'라 불리는 역새와 띠풀이 무성하다고 붙여진 샛디고개처럼 탁월한 경물에 유래한 명명이 있다. 마지막으로 말등처럼 생긴 고개라는 의미의 말등고개 등 고개의 지형 형상에 근거한 명명이 있다.

이 결과로 보면, 고개는 저명 장소와의 지리적 근접

전설, 그리고 경관적 특징에 의하여 명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 2. 고개의 지형 부위로 본 유형적 특성

고개가 위치한 지형형태를 지형도와 현지 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산목형, 산허리형, 산마루형으로 유형화하여 구분하고 지형 부위의 형태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 1) 산목형

산목형 고개는 산이 두 마을 또는 도시를 분단하는 경계가 된 곳에서 주로 보이는 것으로 두 지역을 가장 가깝게 이어주는 경계부위에 있다. 이 고개에서 체험되는 조망행동은 산등성이에 의하여 폐쇄되었던 시계가 산목에 올라서는 순간 일순에 열리면서 멀리 원망하게 된다. 이 때 시선은 주로 진행방향의 전·후로 향하게 된다. 이 산목형 고개에 해당하는 것이 조사대상지 44개소 중 18개소로 확인되었다.

### 2) 산허리형

고개가 산허리에 위치한 형태로 경계 정선의 「단발령 망금강산(斷髮嶺望金剛山)」의 단발령이 여기에 해당된다. 시선은 진행방향의 좌·우 중 한 방향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산허리형 고개는 22개소로 확인되었다.

### 3) 산마루형

고개가 산봉우리에 위치한 것이다. 산마루에 난 고갯길로 조사대상지 가운데 4개소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그 수가 현저히 적었다. 고개에서의 시선은 사방으로 거침없이 둘러보게 된다.

## 3. 고개에서 조망되는 경관유형

고개를 유형별로 분류한 후 고개에서 체험하는 조망 대상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경관을 구분하였다.

고개에서 체험되는 경관이 주로 산봉우리나 산자락인 경우를 산자락형으로 하였다. 마찬가지로 바다와 섬 그리고 수평선을 조망할 수 있는 고개는 해산(海山)형, 산이 시가지를 감싸듯이 펼쳐지는 도시경관이 조망되는 고개는 배산도시형, 시가지와 산, 바다가 한꺼번에 조망

되는 곳을 산수도시형이라 명명하였다.

조사대상지의 고개 중 조망행동이 가능한 고개는 전체 44개소 중 29개소로 나타났다. 여기서 제외된 15개소의 고개는 고개 주위가 시가지화에 의하여 시계가 차단되거나 폐쇄되어 있는 경우였다.

고개에서 체험되는 경관 유형은 배산도시형이 총 15개소였다. 상세하게는 산목형에서 3개소, 산허리형에서 10개소, 산마루형 2개소로 전체 29개소의 고개에서 15개소에 해당되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개에서 산수와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산수도시형의 경관은 산목형에서 3개소, 산허리형에서 3개소에서 관찰되어 총 6개소였다. 마지막으로 시가지를 제외한 산과 바다가 독립적으로 조망되는 장소는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다와 산지가 대표적인 경관요소인 부산이라는 시가지의 특성상, 고개에서 보이는 경관 유형은 산과 바다와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산수도시형이 가장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다. 이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해안에서 내륙으로 확장하면서 고개에서 보는 경관 대상이 다양해진 것으로 보인다.

## 4. 고개의 시각특성

고개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고, 시거리, 부각을 측정하였다. 부각이 고개에서의 경관특성을 설명하는 주된 요소라고 여겨, 부각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시가화로 인하여 시계가 차단되어 있는 18개소를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26개소의 고개에서 본 시각 특성을 분석하였다.

### 1) 고개의 표고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개는 최저 20m에서 최고 390m 사이에 분포하고 있지만, 주로 50~200m의 범위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고개가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산의 표고가 801m의 금정산을 최고인 점과 고개가 교통로의 역할을 하므로 그 위치가 산마루보다는 산허리나 산목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점으로 보여진다.

### 2) 고개에서 보는 경관에 대한 부각

고개와 같이 시점이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경

관대상에 대한 부각이 경관의 인상을 결정 지운다(篠原, 1982). 시노하라에 의하면 부각  $-8^{\circ} \sim -10^{\circ}$ 가 시측에 해당하며 거기에 주경관이 있을 때 인상적인 경관체험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부각  $-2^{\circ} \sim -3^{\circ}$ 를 부감의 상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내려다보다 라고 하는 행동의 한계라고 한다(篠原, 1982).

고개에서 조망되는 부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경관 대상이  $-7^{\circ}$  부근에 있는 만덕고개와 널밭재가 있다. 이는 시노하라가 제안한 부각의 시측에 비교적 근접하는 곳에 경관대상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그 외 대다수 고개에서 조망되는 부각은 주로  $-5^{\circ} \sim -1^{\circ}$  사이에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고개에서 조망되는 부각이  $-3^{\circ} \sim -1^{\circ}$  사이에 분포하는 곳이 16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고개에서 내려다보는 시선과 경관대상이 이루는 부각의 범위가  $-3^{\circ} \sim -1^{\circ}$  사이에 있는 것이 부각을 측정 한 고개 26개소 중 16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고개에서는 아득히 내려다보는 부감경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평탄한 수평경을 체험하고 있다는 의미다. 적어도 만덕고개, 널밭재와 같이 최적의 부감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고개에서는 멀리 내려다볼 수 있도록 조망을 확보하도록 하는 경관보전이 필요하다.

### 3) 시거리

표고와 부각을 이용하여 시거리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개에서 조망되는 경관대상은 시거리는, 가장 가까이는 0.3km에서 멀리는 14km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조망역을 보여주고 있었다. 조망대상이 분포하고 있는 지리적 범위로 0.3~14km가 예측되었지만, 주로 조망 대상이 되는 곳은 시점과 가까운 곳이다. 부산의 고개는 26개소 중 11개소가 1.2km 안을 조망 시거리로 하고 있다. 그리고 경관의 표정을 알 수 있는 거리를 3km로 설정하고 있는 데 이 연구에서는 이 거리역 내에 조망 시거리를 가지고 있는 고개가 21개소다. 다시 말해서 부산시의 고개에서는 경관의 표정을 알 수 있는 범위 내에 조망 대상이 분포하고 있다. 이 결과로 고개에서 보는 경관이 아득하고 망망한 원경이 아니라 표정을 알 수 있는 생생하고 친근한 경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5. 고개의 조망행위 저해요소

조사대상지 고개 중 현재의 용도를 살펴보면 감고개, 불태령, 제기넘기고개, 어부랑고개 만이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40개의 고개는 차도 등 교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고개에서의 조망 행동을 방해하는 것은 크게 건물, 수목, 인도교, 옹벽, 고가교 등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전체 44개소의 고개에서 25개소가 건물에 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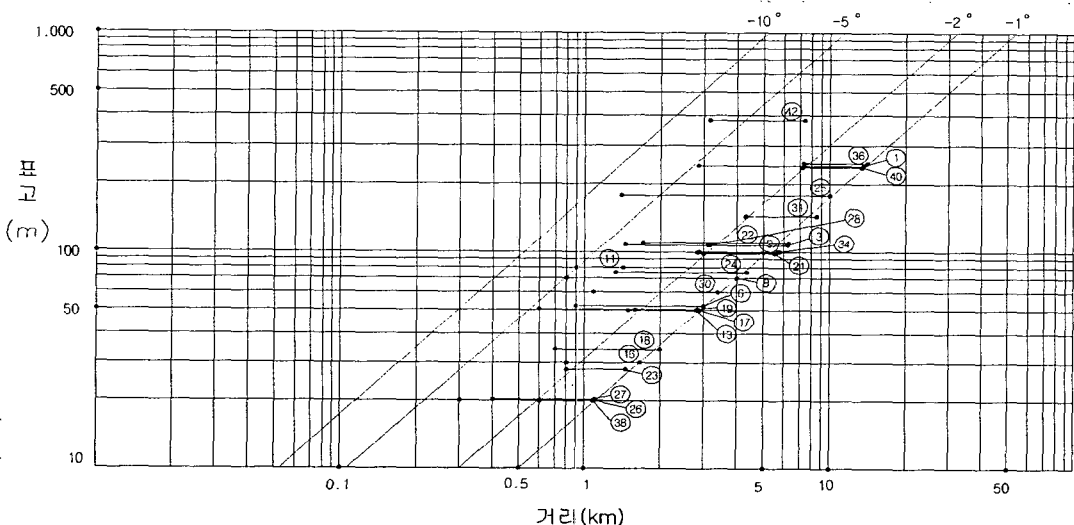


그림 1. 고개의 조망범위

범례 : 1. 감고개 : 3.대티고개 : 6.영선고개 : 8.북정어고개 : 9.아리랑고개 : 11.개곶이고개 : 13.마비현고개 : 16.못웃고개 : 17.인생문고개 : 18.안락고개 : 19.한실고개 : 21.망너머고개 : 22.빨끼이고개 : 23.우암장고개 : 24.장고개 : 25.만덕고개 : 26.말등고개 : 27.야시고개 : 28.달맞이고개 : 30.배고개 : 31.반달고개 : 34.야시고개 : 36.당고개 : 38.룻고개 : 40.개좌고개 : 42.반달재

조망이 방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결론

본 연구는 부산에 있는 고개 44개를 대상으로 고개의 조망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시 소재 고개의 지명은 그 명명의 수법이 크게 저명한 장소 속에 포함, 전설(전승), 탁월한 경물, 지형 및 지모 등 4종류로 나타났다.

둘째, 부산시에 산재하고 있는 고개는 그것이 위치한 지형형태에 따라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위치하는 산목형, 고개가 산허리에 위치하는 산허리형, 고개가 산봉우리에 위치하는 산마루형으로 총 3종류의 고개로 분류되었다. 부산의 고개는 산허리형이 22개소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셋째, 고개에서 체험하는 조망대상은 산자락형, 해산형, 배산도시형, 산수도시형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지 중 조망행동이 가능한 고개 29개소 중 배산도시형이 산목형에서 3개소, 산허리형에서 10개소, 산마루형에서 2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지 고개에서 체험되는 경관대상의 시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고개가 위치하는 지점의 표고는 50~200m의 범위에 있었다. 고개에서 조망되는 경관대상은 주로 부각  $-3^{\circ} \sim -1^{\circ}$ 의 범위에 있었다. 이 범위는 수평선으로

볼 때처럼 지면과 평행한 시선이다. 부각  $-3^{\circ} \sim -1^{\circ}$ 은 부감경의 상한이다. 고개에서 보는 경관대상이 이 범위의 부각역에 분포하는 것은 도로개설로 등으로 인하여 고개의 고유지형을 상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고개에서의 조망행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도로개설과 주변의 건축행위, 그리고 수목, 고가도로, 옹벽, 육교 등으로 나타났다.

고개는 그 입지적 특성상 부감경 조망이 유리한 시점장이다. 그러나 부산의 고개에 한정해서 고찰해 보면 대부분의 고개는 개발행위에 의하여 고개의 고유지형을 상실하고 지명만 남아있는 곳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 최적의 부감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고개는 향후 지형설계 등 경관계획에서는 그곳에서의 조망행동이 온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보전되어야 할 것이다.

## 인용문헌

1. 강영조 (1993) 지명 명명공간의 형태와 상모적지각의 지형보전적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21(2): 68-79.
2. 강영조 (2002) 지형명칭에 의한 경관분류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26(1): 99-108.
3. 강영조 (2003) 풍경에 다가서기. 효형출판.
4. <http://www.busan.go.kr/busan-intro>
5. 篠原修 (1982) 日本景觀の計畫, 技報堂.
6. 樋口忠彦 (1975) 景觀の構造, 技報堂: 日本.